

세계의 곡창 미국의 콘벨트를 찾아서...



편 명 식

(주)팜스토리한농 도드람B&F 대표이사

큰 마음을 먹고 비행기에 오르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던 미국의 사료 곡물 자원에 대한 산업 시찰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료 곡물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과 늦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곡물의 생산과 수송 그리고 품질, 가격결정이 되는 과정을 보고 느끼고 경험 해보고 싶었던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나리타를 거쳐 디트로이트 그리고 워싱턴DC에 도착하여 3박, 다시 디트로이트를 거쳐 시카고에서 4박, 또 한번 미네아폴리스를 거쳐 포틀랜드에서 2박, 그리고 나리타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돌아 오는 11일 간의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곡물산업 시찰이 처음인데다가 곡물 시장에 대해서는 지식이 작은 만큼 학술적인 것보다 보고 느끼고 들은 얘기들을 가볍게 기술 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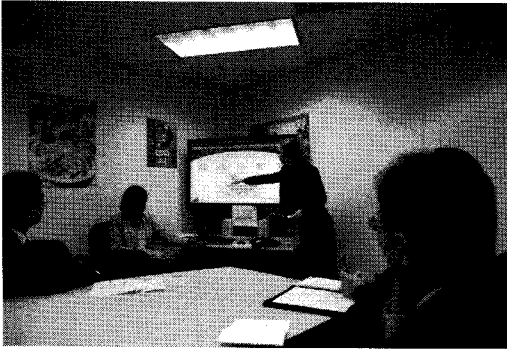
작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도시 워싱턴DC

생애 처음 찾은 워싱턴DC. 정말 크고 길 찾기도 쉽지 않은 복잡한 도시라는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역사가 짧고 다 민족이어서 인지 고풍스러움(유럽식?)을 모방한 건물들과 현대식이 어우러진 작고 깨끗한 행정 중심의 도시임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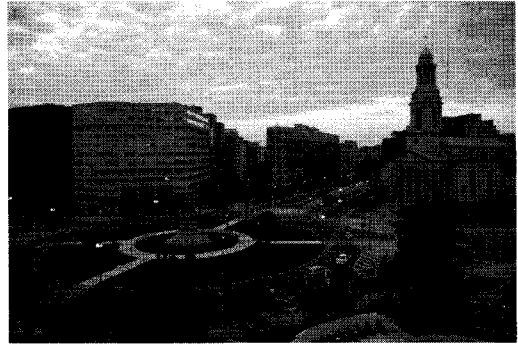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놀이공원의 미니 어쳐 같은 느낌이랄까? 첫날 우리는 USGC(미국곡물협회)와 USDA(미국농무성)를 방문하여 현 미국 곡물상황과 미래 예측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세계 농산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농무성에는 WAOB(World Agricultural Outlook board) 라는 세계 농업을 예측하여 보고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팀은 5개 팀으로 나누어져 자국의 농업 상황, 기후에 따른 농업 예측, 세계 각국의 농업상황 그리고 경제상황과 자국의 농업 서비스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정보가 WAOB로 수집됨과 동시에 분석된 자료



〈사진 1〉 WAOB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 농무성 직원



〈사진 2〉 조용한 워싱턴DC의 아침

들이 각 기관에 레포트가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자료들이 세계 식량자원에 대한 중요한 기초 데이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상황 역시 관련된 정보가 수시로 보고되고 있다는 말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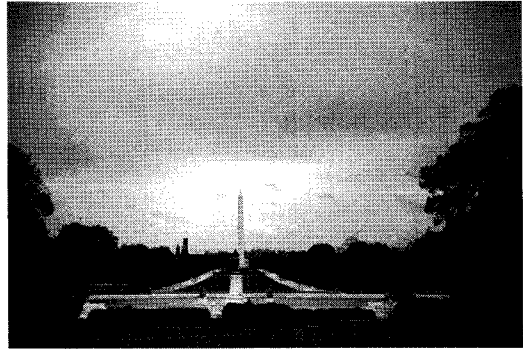
개괄적으로 세계의 곡물 수출량은 에탄올 생산과 중국의 수입 여건에 따라 부족이 예상되며, 현재 미국의 파종면적은 늘어났으나 작황이 좋지 않고 에탄올 생산량이 늘 예정이어서 2012년에도 재고량은 금년보다 좋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의 수출량이 늘어나 그나마 부족분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DC는 세계를 움직이는 도시답게 차분하고 격과 규칙이 있는 아주 조용한 도시의 느낌입니다. 특히 USDA(미농무성) 건물은 행정부 중 가장 넓고 큰 건물로 그 중요성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DC는 마뉴먼트 기념탑을 중심으로 백악관과 모 대통령 기념관 그리고 링컨 기념관과 국회 의사당이 열 십자 형태로 계획

적으로 지어진 도시입니다. 지금의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지켜본다는 의미(?) 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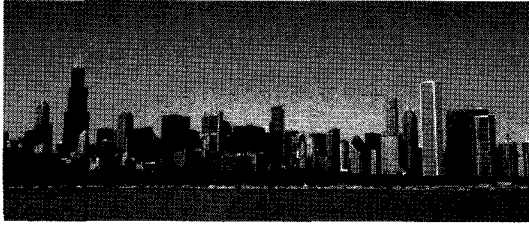


〈사진 3〉 워싱턴DC는 사진의 마뉴먼트

세계 곡물 시장을 움직이는 시카고

워싱턴의 3일은 짧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워싱턴DC를 뒤로 하고 일요일 시카고를 가기 위해 일찍부터 서두릅니다.

시카고는 건축물의 도시이자, 물류 중심의 도시이며, 세계 곡물 가격을 결정하는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870년 대 화재로 인해 도시 전체가 전소된 이후 시카고 역시



〈사진 4〉 아름다운 건축물의 도시 시카고 전경

철저한 계획하에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 하나 하나가 전부 예술 그 자체라는 것을 무지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카고의 아침은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CBOT(시카고 현물거래소)를 가던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 곡물가격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라고” CBOT에서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거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는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신호를 통해 딜러에게 곡물을 사고 파는 현장은 우리 농산물 시장이나 수산물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르다면 전광판이 있다는 것.

전광판에 곡물가격이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저절로 긴장감



〈사진 5〉 CBOT(시카고 현물 거래소) 내부 거래 현장



〈사진 6〉 고풍스러운 “우노” 피자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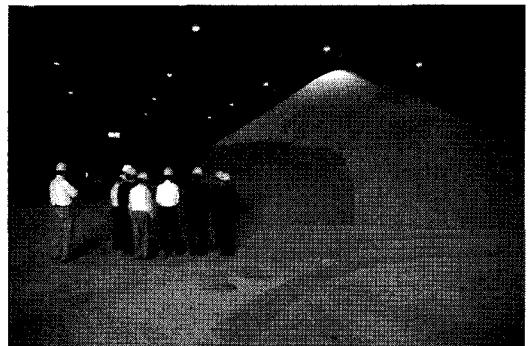
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히 피자로 식사를 하기로 하고 유명하다는 피자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 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옥수수 가격 상승요인 중 하나인 에탄올 공장은 우리의 관심사였으며, 부산물인 DDGS의 생산 과정과 품질 역시 견학하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려다 낭패를 본 피자집을 뒤로하고 우리는 일리노이에 있는 LLC라는 에탄올 생산 회사를 방문합니다.

이 회사는 자국 내에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비육우나 낙농목장에 공급하고 남은



〈사진 7〉 에탄올 부산물인 DDGS 생산 공장

DDGS를 컨테이너를 통해 국외 수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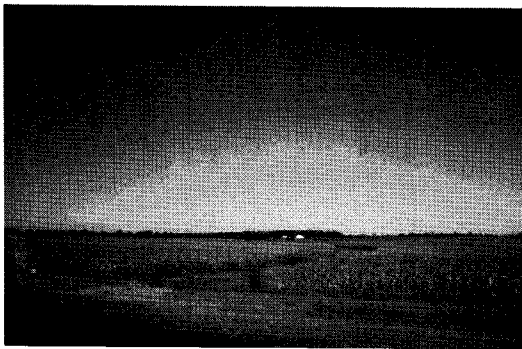
옥수수 입고부터의 품질이 DDGS의 품질을 결정한다는 생각 때문에 품질 기준을 정확히 지키고 있다는 얘기와 향후 몇 년간은 에탄올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고 2015년 이후 정제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USGC의 설명을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정유사에 에탄올을 일정비율 첨가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에탄올 사업은 앞으로도 전망이 있다는 얘기도 잊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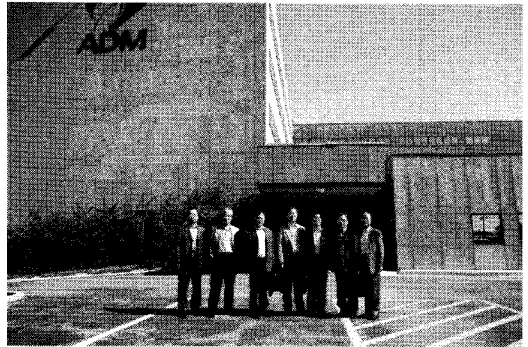
세계의 곡창 미국 콘 벨트를 찾아서...

새벽 5시 옥수수 농장과 수출업체 그리고 컨츄리 엘리베이터를 방문하기 위해 서두릅니다. 시카고에서 잠깐 벗어나자마자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옥수수 밭은 그야말로 놀라움 자체였습니다.

2~3시간을 지나도 끝나지 않는 밭. 언제 수확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37%를 차지 한다는



〈사진 8〉 버스에서 본 옥수수 밭



〈사진 9〉 ADM 본사 앞에서

말이 허언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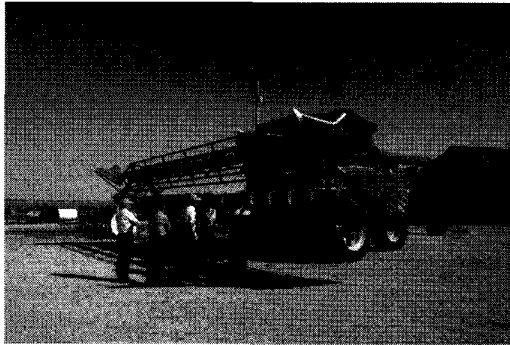
버스로 5시간을 이동하여 디케이터에 있는 ADM사를 찾습니다. ADM은 세계 곡물 메이저 중의 하나로 곡물 매입, 판매, 수출,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 국방성 펜타곤 같은 느낌으로 2~300명이 칸막이 없이 긴장감 있게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ADM사의 소개로 1시간을 달려 옥수수 재배 농가를 찾습니다. 5,000ha(1,500만평)의 면적에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는 이 농가는 이미 수확을 마쳤습니다. 작황이 좋지 않고 기후가 염려되어 빠르게 수확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수확된 옥수수의 일부는 자체 건조장에서 저장을 하고 나머지는 이미 판매가 된 것 같습니다.

농장에서 생산된 옥수수는 인근 축산 농가에 직접 판매를 하거나 ADM과 같은 곡류 전문 회사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ADM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근의 컨츄리 엘리베이터를 찾아 갑니다.

수확철이라 그런지 곡물을 심은 차들이



〈사진 10〉 수확 후 밭을 갈아주는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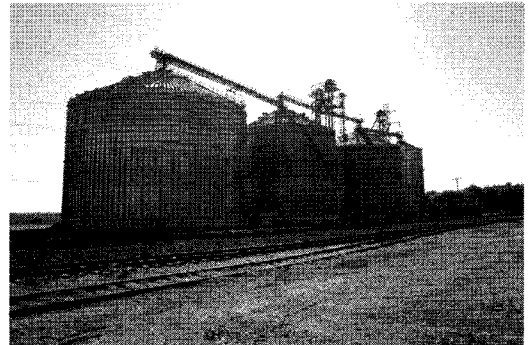
설세 없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ADM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추리엘레베이터는 백만부셀(250,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으로서 이곳에 들어오는 곡물은 대부분 세마이라는 대형 트럭에 의해 운송되고 있었으며, 입구에서 간단한 샘플을 채취한 후 성분 분석이 이루어진 뒤 건조 과정을 거쳐 사이로에 저장하게 됩니다.

컨추리 엘리베이터에 저장된 곡물들은 수출을 위해 기차나 수송차량을 통해 다시 미시건호와 미시시피강에 위치한 리버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카고의 마지막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리버 엘리베이터와 곡물을 컨테이너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를 방문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시간을 넘게 버스를 타고 미시시피강변에 있는 리버 터미널을 방문합니다. 저희가 방문한 리버 엘리베이터는 재배농가와 컨추리 엘리베이터에서 곡물 수송 차량에 이동 저장되어 마찬가지로 자국 내에 판매를 하거나 수출물량의 경우는 기차나 1,500톤 정도를 실을 수 있는 바지선을 통해 뉴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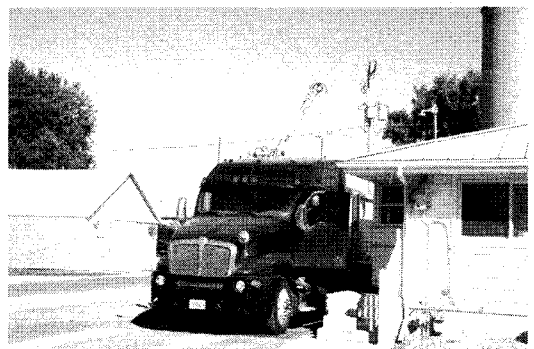
〈사진 11〉 ADM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추리 엘리베이터

리언즈나 포틀랜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여 저장된 곡물은 다시 품질 검사를 거쳐 등급별로 대형 선박에 선적하여 수출하게 됩니다.

입고되는 곡물을 품질 등급에 따라 저장하게 되며, 어떤 경우는 가격적인 이점을 위해 서로 다른 등급을 혼합하여 등급을 높이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답니다.

미국의 곡물에 대한 품질 검사는 USDA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있고 각 엘리베이터에 품질 검사원이 직접 파견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며 수출회사나 관련 업자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어디를 방문해도 자신들의 품질관



〈사진 12〉 세마이라는 곡류 수송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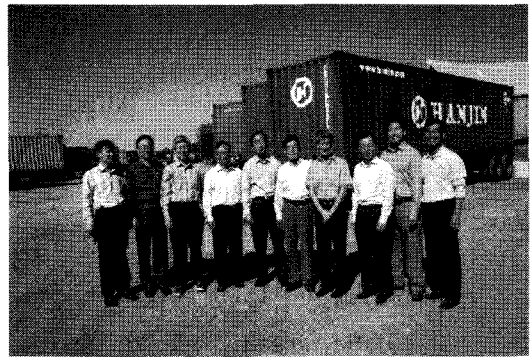
〈사진 13〉 Chicago Illinois River Terminal

리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컨테이너로 곡물을 수출하고 있는 Trans Coastal Supply Co. 를 방문하기 위해 버스에 오릅니다.

우리가 방문한 컨테이너 전문 수출업체인 Trans Coastal Supply Co. 몇 년 전만해도 20여 개의 컨테이너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연간 백만 톤을 넘어섰고 200여 개의 컨테이너로 성장한 회사 입니다. 우리나라는 광양항을 통해 DDGS가 컨테이너로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이면서 부사장으로 있는 Robert J. Briscoe의 열정이 매우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사진 14〉 Trans Coastal Supply 부사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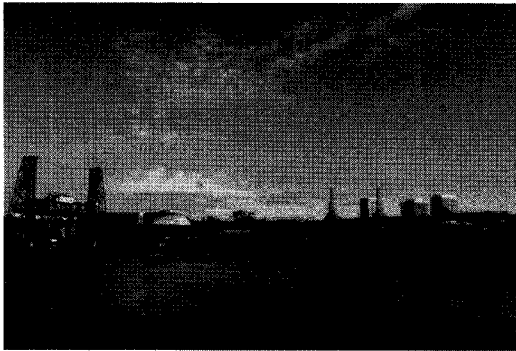
이 회사는 철저한 품질을 자부하며, 특히 곡물의 일정한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컨테이너를 통한 수출이 매우 강점이 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곡류 입고와 품질 검사 그리고 건조 및 저장과정, 컨테이너에 곡물을 싣는 과정까지 상세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카고의 일정도 마무리 되어 갑니다. 우리는 4일의 시카고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일정인 미 서부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 오리건주의 포틀랜드(PORT + LAND)로 이동합니다.

곡물 선적(船積)! 수출 길에 오르다.

포틀랜드는 그 동안 다녀 왔던 워싱턴DC 나 시카고와는 다른 느낌의 도시였습니다.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지만 그 역사의 시간에 맞게 그나마 고풍스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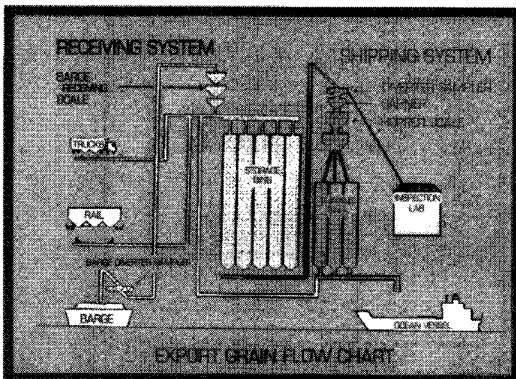
특히 콜롬비아 강에 있는 다리들은 배들이 지나갈 때 들어 올려지는 시설이 되어 있어 항구도시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듯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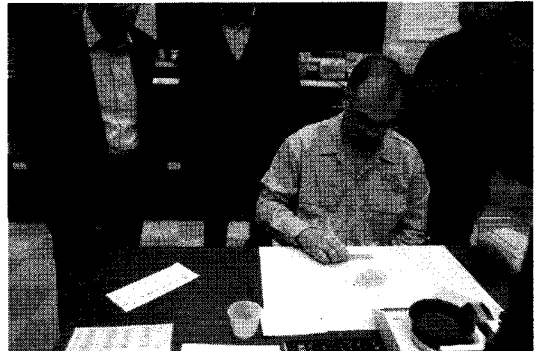
〈사진 15〉 콜롬비아 강의 풍경

우리는 USDA 산하의 FGIS(Federal Grain Inspection Service)를 방문하여 곡물을 선적하기전에 시행하는 품질 검사 Processing에 대하여 설명을 듣습니다. 이곳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어떤 영향력도 배제한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만큼 품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지선이나 트럭, 기차로 운송 되어진 곡물은 계량 과정을 거친 뒤 사이로에 저장되어 집니다. 그 다음 배에 싣기 위해 Shipping bin에 저장되게 되는데 저장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계량과정을 거치고 곡물의 Sample을 채취하게 됩니다.



〈사진 16〉 곡물 선적 PROCES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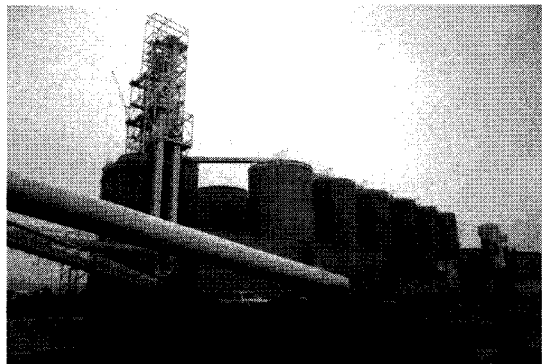


〈사진 17〉 잘못된 원료를 하나하나 골라내는 FGIS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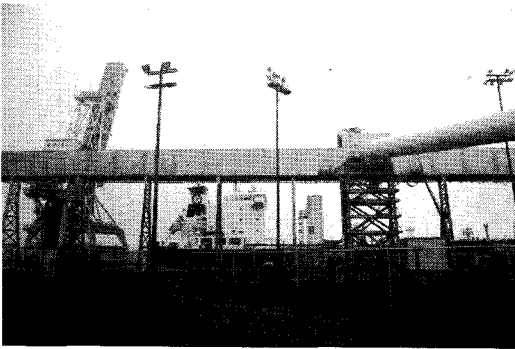
채취된 Sample은 바로 FGIS에서 품질 검사가 이루어지고 구매자와 판매자의 기준에 합격할 경우 배에 바로 선적하지만 만약 불합격 될 경우 다시 저장 빈으로 되돌리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4시간을 다시 워싱턴주로 이동합니다. 실제 선적되는 과정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이 일년 중 8개월은 비가 오고 4개월 정도만이 햇빛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있는 시기가 긴 우기중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4시간을 달렸지만 비가 오는 관계로 선적되는 과정은 볼 수 없었습니다.



〈사진 18〉 저장빈과 SHIPPING 빈



〈사진 19〉 합격된 곡물을 배에 실을 수 있는 시설



우리가 방문한 곳은 현재 대두만 전량 수출 선적하는 곳으로 불행하게도 주 사료 곡물인 옥수수 선적 장면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쉽게 여유를 찾을 수 없었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옥수수 생산농장에서 출발 CBOT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컨츄리 엘리베이터를 거쳐 리버티미널 그리고 마지막 수출을 위해 품질 검사를 받은 후 선적되어 태평양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중한 경험을 마치며...

중국의 경제 성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위기 의식으로 인해 세계 곡물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고 식량 자원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 단백질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의 축산업 현실에서 본다면 곡물가격 상승은 곧 원가 경쟁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곡물가격의 하락이나 안정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매의 시기와 가격 협상, 그리고 구매처의 다변화와 곡물의 품질, 아울러 물류비용의 효율화 등은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할 요소라 판단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번 곡물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은 제게 아주 소중한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해야만 하는 우리의 곡물 자원에 대한 경쟁력은 그 과정 속에 어느 정도 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매 경쟁력을 갖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 분들의 땀이 곧 우리나라 식량 자원의 경쟁력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짧지 않았던 산업시찰 여행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동료 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